

종합·해설

지적도와 실제 땅 뒤죽박죽... 100년만에 재조사

땅 경계 다시 그려 이웃간 분쟁소지 없앤다

연간 소송비용 3800억... 내년부터 20년간 1조2000억 투입

광주 39만필지의 땅 지도가 새로 그려진다.

1910년 일제가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地籍圖)를 전면 재조사해 정확하게 땅의 경계와 면적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 100년 된 엉터리 지적도=지적도는 땅 경계선과 면적 등을 알리는 평면지도로, 토지의 과세와 거래, 등기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지적도에는 땅의 위치와 지번, 지목, 경계, 경계점간 거리 등이 표시돼 있다.

현재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

어져 오차가 많고 종이로 돼 있어 지형도·해도 등 기준에 디지털화된 다른 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이해 당사자간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도 초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3761만 필지 중 14.7%(554만 필지), 전 국토면적(10만 37km²)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분쟁으로 소송비용만 연간 3800억원에 달하고, 경계 확인 측량을 위해 연간 900억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지구 선정은 중앙부처·광역단

체·기초단체의 각 단위별 재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해 행정구역별로 진행한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적공사의 측량수수료 중 일부를 빼내 조성하는 '지적재조사기금'에서 사용한다.

◇ 실제지형과 맞지 않으면=필지의 면적이 새로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 청산할 것을 의무화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땅이 늘어난 소유자는 납부 고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돈을 내야 된다. 이를 어기면 지방세를 청납한 것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압류를 당하고 청납이 계속되면 공매된다.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땅값 추이와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대개 실거래가의 80~9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처럼 땅값이 비싼 곳은 땅값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칫 무더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양기수 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적재조사는 평면적인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지, 지하에는 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를 조사해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라며 "100년 만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정확한 우리 지도를 갖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빚어졌던 각종 분쟁과 갈등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전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9일 광주 북구 종의공원 '제18회 세계김치문화축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김치작거래장터에서 김치를 구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시광산기술원 유치 본격화

광주시 국회사 포럼

광주시가 희소금속을 회수해 재사용할 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도시광산기술원의 유치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민주당 김재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함께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광산산업 육성과 한국도시광산기술원 광주 설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도시광산산업은 휴대전화·컴퓨터·2차전지 등 폐가전제품에서 금·은·구리·리튬·인듐 등 첨단산업에 필수소재인 희소금속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미래지향적 산업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올 6월에는 희소금속 산업생태계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희토류·리튬·인듐 등 11대 전략 희소금속을 선정했다. 향후 10년간 소재화 및 대체기술개발 등에 3000억원

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광산업·생활가전·자동차·2차전지 등 도시광산 관련 산업 육성기반 마련과 있고 올해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산업으로 도시광산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기관인 한국도시광산기술원을 광주에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류세선 광주테크노파크 정책 기획단장도 "광주시는 우수한 과학기술역량 및 인프리를 보유하고 있고 도시광산 비즈니스모델 창출의 최적지로 평가되는 등 유치 여건이 좋다"며 "내년에 기술원을 설립, 2014년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 2015년까지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원 유치로 2012년까지 고용 창출 1만5000명, 생산유발효과 4조 1600억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김치축제 40만명 다녀갔다

외국인 3만여명... 오감 체험 박물관 최고 인기

김치버스 36개국 80개 도시 방문 세계화 나서

'제18회 세계김치문화축제'가 5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콘스탄틴 부누코프 주

한국인 37만여명 등 모두 40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 '축제의 전국화와 세계화'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김치축제의 백미는 단연 '김치버스'였다. 지난 15일 개막행사에서 출정식을 가진 김치버스는 '김치 종주도시 광주'를 출발하여 전세계 36개국 80여개 도시 5만2000km를 40여일간 횡단하면서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세계김치문화축제와 광주김치 '감칠배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김치전도사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 내년 9월 말 워싱턴DC에서 개최 예정인 김치축제 해외행사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올해 김치축제에서 가장 인기를 끈 콘텐츠 중 하나는 김치오감(五感)박물관이었다. 지금까지 김치축제가 보여준 전시 중 최고로 평가받은 김치오감박물관은 국내외의 다양한 김치 콘텐츠를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전시관 내 설치된 '김치 판타지'는 김치의 속성과정을 사계절 변화에 맞춰 영상으로 표현한 거울방으로, 마치 4차원 세계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관람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올해 김치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했다. 행사를

중외공원 주변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이나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김치를 안주로 와인을 마시며 '파티'를 벌이는 광경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김치담그기체험관에 마련된 '외국인 김치스쿨'도 해외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축제의 중요한 컨셉 중 하나는 '나눔의 축제'였다. 광주공예협회와 공동으로 '아트 마켓'을 운영하고 '사랑의 김치우체국'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커뮤니티 축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김성훈 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김치의 세계화, 축제의 완성도 등에서 활발한 만한 성과를 냈지만 아니라 지역 김치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김치문화축제와 별도로 워싱턴DC의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김치문화축제 해외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설명판

- 김종우



저네들짓과 뭐가 다른건지, 원...

2012 MURANO
완벽에 가까운 것과
완벽한 것은 다르다



NISSAN

광주전시장 Grand Open!

이제 광주에서도 뉴산 차량 구입부터
A/S까지 One-Stop Service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NISSAN 공식딜러 프리마모터스

광주전시장_062)221-7000

www.nissan-prima.co.kr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20-12번지

